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7일 부산 벡스코의 대한민국관을 찾아 불교문화 홍보 부스를 라운딩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개국 75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은 7월 27일 범어사 선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세계 각국의 유산 전문가들이 7월 28일 '기념 유산 필드트립'에 참가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7월 26일 사찰음식 장인 도림 스님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찰 다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K-불교 '살아있는 유산' 가치 재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7월 28일, 11일간 대장정 회향
대한민국관 12만명 관람 대성황
선명상·영산재 등 호평 이어져
범어사 사찰음식으로 '문화외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11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62개국 3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이 신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세계 주요 불교 문화유산이 목록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불교의 유·무형 유산이 지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독창적인 문화외교 무대가 되었다는 평가다.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누적 관람객 12만명을 돌파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요 사찰이 함께 마련한 불교체험 부스에는 각국 대표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통도사의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인경체험, 봉원사의 영산재 시연 등은 한국불교의 진수를 세계에 알렸다.

치열한 외교 일정에 지친 각국 관계자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도 호응을 얻었다.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화두 선명상'과 오감을 깨우는 '차명상'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휴식과 집중을 선사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기획한 필드트립을 통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한 세계유산 전문가들은 신라 불교미술의 숭고함과 치밀한 과학적 설계에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감탄했다.

문화외교의 정점은 7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사찰음식 만찬'이었다. 나예프 알파예즈 유네스코 문화담당 사무총장보 등 17개국 대표단 75명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 1700년 수행의 정수가 담긴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만찬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핵심 사상인 '세계일화(世界一花)'를 국제사회에 화두로 던졌다. 스님은 "불교에는 세계는 하나의 꽃이며 너와 내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연기의 가르침이 있다"며 "사찰음식은 이러한 공존과 연대의 철학을 정성껏 담아낸 결정체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는 수행이며 생명에 대한 깊은 보은"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스님은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찰음식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삶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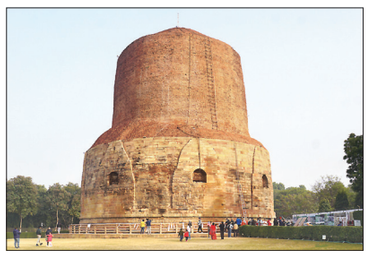
이에 나예프 알파예즈 사무총장보은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담긴 사찰음식은 모든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화답했다.

사찰음식의 인기는 26일 벡스코 총회 현장에서 열린 'K-디저트 데이'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도림 스님이 직접 준비한 팥양갱, 금귤 정과, 흑임자 다식 등 다과 5종과 연꽃차 500인분은 조기 품절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인류의 유산을 포용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6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 불교유산 대거 등재

인도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日 아스카데라·태국 사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새롭게 등재된 인도 사르나트 고대 불교 유적.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인 세계 주요 불교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 목록에 대거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7월 25일 등재가 확정된 인도의 '사르나트(녹야원) 고대 불교 유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불법을 전한 초전법륜지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성도지인 보드가야,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와 함께 4대 성지로 꼽힌다.

이와 함께 백제 기술자들이 파견돼 부여 왕흥사를 모델로 지은 일본 최초의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가 포함된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 수도'와 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인 '왓 프라마하탓 사원'도 새롭게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7일 범어사 사찰음식 만찬 자리에서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위원회의 값진 결정과 헌신에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8개 회원종단도 7월 27일 공동 담화문을 내고 "사르나트는 부처님 깨달음이 중생을 향한 가르침으로 이어진 불교사의 출발점이자,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처음으로 펼쳐진 성스러운 공간"이라며 "이번 등재는 사르나트가 지닌 역사적·종교적·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가 함께 인정한 뜻깊은 결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불교계도 사르나트에서 펼쳐진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인류의 평화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하성미 기자**

진관사 국행수륙재 시연

미래세대 동참 퍼포먼스
"세계유산 등재에 만전"



7월 26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시연 모습.

7월 26일 벡스코 대한민국관 무대에서는 600년 역사를 이어온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핵심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외로운 영혼부터 미물의 생명까지 모두 청하여 불법을 전하고 위로하는 불교의 대표적 의식이다.

이날 시연은 4일간 치러지는 방대한 의식 중 핵심만을 압축해 유네스코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 맞춰 재구성됐다. 도량을 수호하는 '옹호게(擁護偈)'를 시작으로 스님들이 바라를 울리는 '명발(鳴鈸)', 꽃과 향을 올리는 '향화게(香花偈)', 공덕을 회향하는 '가지게(加持偈)'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님들뿐만 아니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 어린이·청소년 법회 소속 미래세대들이 적극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처님과 보살 등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관람객들에게 안내 팸플릿과 '수륙과'를 나누어 주는 퍼포먼스를 펼치자, 유네스코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연을 총괄한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무대를 마친 후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스님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류와 우리 사회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소리를 냈다"며 "진관사 수륙재의 숭고한 생명 존중 의식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등재 준비와 후학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